

“생명의 강을 지키자”

4개 중단 도보 순례단, 을숙도 반환점에서 또 다른 출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며 2월 초 수경(화계사 주지), 도법(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지관(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스님과 개신교 이필완 양재성 김민해 차홍도 목사, 가톨릭 최상석 김경일 이동훈 신부 등 4대 종교가 모여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 순례단’을 결성했다.

2월 12일 한강의 북서쪽 끝 애기봉 전망대를 출발해 1200시간을 걸었다. 흐르는 강물을 따라 순례하며 추운 바람도 맞았고 발이 통통 붓도록 고생도

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몸으로 체험하며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순례자’들은 계획했던 100일의 절반을 채웠다. 그리고 4월 1일 부산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 도착했다.

“한반도 대운하를 성찰해보고자 함께 강을 따라 순례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의논을 해보면서 ‘한반도 대운하는 확실히 아니다’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50일이 지난 지금 대운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

장합니다. 대운하 구상은 물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개발주의의 극치이며 경제 동물적 사고의 전형입니다.”

50일 동안 순례하며 그들이 겪고 체험하며 내린 결론이다. 50일 동안 강줄기를 따라 걸고 또 걸으며 느낀 생각이다.

“푸른 강물을 만나 심을 누리고 있는 새들을 볼 때 행복했습니다. 함께 걷는 도반들을 통해 배움을 얻고 기쁨을 받았습니 다. 하지만 검은 기름이 덮여 까맣게 물든 자연을 만날 때는 우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 순례단”이 순례에 나선지 50일이 되는 4월 1일 부산 을숙도에 도착해 대운하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려와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희망과 믿음이 분명히 자라 대운하 계획이 폐지되고 자연이 정정해지고 황폐화된 모든 속에 새 생명이 자랄 때까지 우리 순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순례단은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이날을 기점으로 남은 50일을 위해 또 다시 출발했다. 4월 27일 금강에서는 생명의 강을 모시는 법회와 참회 그리고 천도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공영 살림으로 ‘화합 발전’

인터뷰-부산 범어사 주지 취임 정여 스님

부산 범어사가 4월 3일 범어사 탑전 앞에 제23대 주지 진산식(晉山式)을 봉행했다. 진산식에 앞서 1일 주지로 취임한 정여 스님에게 앞으로 범어사 및 부산불교를 이끌어 갈 수장으로서 향후 방향 및 계획을 들었다.

“범어사는 법이 살아 있는 도량입니다. 법과 질서가 우선 돼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범어사가 발전해야 합니다. 문중화합이 우선입니다. 문중화합을 위해서는 문중이 함께 참여하는 공영살림을 해야 하는데 공영살림이란 법이 내 여러 문중에서 2~3명씩 참여해 문중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범어사의 크고 작고 중요한 일들은 문중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범어사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부드러움이고, 따뜻한 입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자비 사상이죠. 스님은 유림인들에게 같은 명상을 시켰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걸으며 수행하는 명상을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명상을 해보니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참다운 자신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범어사는 선종대본산에 맞게 곳곳에 좋은 여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원암 쪽으로 난 오솔길은 경이 명상을 시



행하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쉬운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와 함께하는 명상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어사는 화엄십대 사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천견해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듯이 범어사도 훌륭한 선지식을 모셔서

정여 스님은 ‘대중화합’과 ‘공영살림’을 강조했다. 대중이 하나로 뭉치고 힘을 모아 제대로 범어사를 되살리자는 것이다. 부산 범어사는 융성 동

문중운영위원회 구성·지역 문화운동 견인 선종대본산·수행 도량 위상 세우기에 매진

산 스님 아래 범어문중이라는 조계종 최대 문중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불교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응색하다. 범어사가 한국불교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스님에게 여쭙었다.

“범어사 문중은 융성문도의 후손들로 걸출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물이 많으니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우려하는 정도는 아니며 범어사 발전을 통해서 문도가 화합할 것입니다. 법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수행풍토가 살아나면 범어사의 위상은 절로 생깁니다. 기존 설립전은 200~3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데 요즘은 부처님 말씀에 전하는 장소가 대 형 화 되고 있습니다. 2000~3000명이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대형 설립전이 필요하기에 설립전이나 보 제루 불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불사를 통한 범어사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스님은 포교현장으로 나오기 전에는 선방 수좌였다. 선종대본산 범어사에 걸맞는 수행 도량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 궁금했다.

“우리아라는 불교 중심으로 국가가 발전하여 왔는데 지금은 다종교 시대로 함께 가야 합니다. 세상은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쟁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고 살리는 일까지 합니다. 종교인들의 사명은 맑고, 아름답게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보다 더 화합된 모습으로 함께 간다면 여러 종교가 공존해도 다행이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교지도자실현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며 화합과 대화로 이끌겠습니다. 이제 범어사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신도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부산의 불자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프랑스 틱낫한 스님은 화를 내지 않고 오세룡 부산시사장

“Free Tibet, 탄압을 중지하라”

부산 각지에서 티베트 희생자 위한 행사 열려



양산 통도사에서 3월 31일 티베트인들을 위한 천도제가 봉행됐다. 사진은 주지 정우 스님이 재를 올리는 모습.

부산 각지에서 티베트의 자유를 주장하며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모임이 개최됐다.

3월 31일 통도사(주지 정우)에서는 중국인들의 과잉 진압 과정 중 억울하게 희생된 많은 티베트인들을 위한 천도제가 봉행됐다. 주지 정우 스님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이런 인명피해와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천도제를 봉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는 “티베트에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며 4월 1일 부산사직구장에서 관중들

을 향해 피켓시위를 벌였다. 손정현 회장은 “평화를 위한 시위이니 즐거움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야구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자 했다”며 “평화를 위해 함께 동참하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라인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10여명은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부산역에서 ‘살인진압 금지 및 평화와 자유’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현재 티베트의 상황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하성미 기자

맑고향기롭게 사무국 법당 이전 및 부처님 점안식 봉행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본부(회장 박수관)는 사무국을 서면 정산 빌딩 9층으로 이전하고 4월 1일 법당 개소식 및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범어사 전계대화상 흥교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허남식 시장, 설동근 시교육감 등 사무대중 300여명이 참석

해 법당 이전을 축하했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본부 박수관 회장은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생각하며 물질문명의 이기에 저들 어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설립됐다”며 “그 취지에 맞도록 현대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가꾸며 심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흥법사 ‘열린 종교 시민대학’

불교,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천도교 성직자 모임 ‘열린 종교’ (공동대표 심산)에서는 “2008년도 열린 종교 시민대학”을 개최한다.

각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해 강좌를 마련한 열린 종교 시민대학은 4월 2일부터 2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각 교단의 강사들을 초청하여 부산 흥법사에서 진행한다. (051)508-0345 하성미 기자

“삼천배 기도 회향따뜻한 보시행으로”

부산 감로사주지 혜충에서 봉행한 제57회 삼천배 삼천배 참회 기도회 동참한 신도들이 십시일 반 후원금 100만원을 모아 3월 31일 용호복지관(관장 이춘성)에 전달했다. 감로사 신도회 김귀련 회

장은 “삼천배 기도회 동참한 신도들은 참회기도 후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모금하게 됐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의미 있는 성금이니 소중히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무명 밝히는 지혜 켜올”

부산등축제 추진위원회 결성법회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을 맞아 3월 28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부산등축제 추진위원회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봉축을 맞아 부산에서는 대대적인 부산등축제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5월 8일부터 10일 3일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추진위원장 정여 스님은 “신라시대부터 봉행한 연등회를 시민들을 위한 지역행사 뿐 아니라 국제 행사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하성미 기자

神秘의 靈藥 不老長生の 靈草

山蔘

산삼은 천연약재 가운데 최고의 신비로운 불로장생의 영초입니다.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산삼을 꼭 드셔야 될 분

- 수술 후 완벽한 회복을 원하시는 분
- 건강하게 무병장수를 원하시는 분
- 나이가 들어도 정력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
- 수험공부에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
- 젊은부부로 힘세고 총명한 아기 낳기를 원하시는 분
- 기억력이 떨어지고 충기를 잃어가는 사업가

존경하옵는 스님, 불자님의 기력회복과 원기충만을 위하여 산삼을 권해드립니다.

■ 상담 및 주문

산삼 전문 업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정필:분석51160-150)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산양삼농장으로...



“재배 분양 보급” 재테크

“20년” 노하우 산양산삼 재배기술 전파 (사찰임야활용)

새로운 임야 재테크



한차원 높은 생활의 지혜

- 고객상담
 - 전화/이메일/직접상담방문
- 농장견학, 현지답사
 - 농장입지조건, 주위자생 동,식물 관찰
 - 토질의 분석, 전문가 직접 현지답사
- 농장설계
 - 20년 노하우에 의한 농장설계
 - 사찰주변 임야 활용방안
 - 고객 예산고려 후 농장설계
- 종자, 종근 식재
 - 고객님에 의한 직접 식재
 - 전문인력 식재 대행방법

3대 주요사업

- 1 최저가 우수 종자, 종근 보급
- 2 재배 기술 지원 및 교육
- 3 산삼 농장체험 행사

심 마 당 02)713-7798 / 701-4716